

“86살 나이 무슨 상관...늘 현역”

산문박의 禪

성암도서관 김근수 관장



이곳이 출입문일까 싶었다. 하얗게 녹이 슬고 기울어진 새시문을 열고 들어가자 귀퉁이 종이책과 함께 책들이 다가왔다. 성암(誠巖)도서관(762-6891), 한국학관련 서적을 비롯 잡지들이 복도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사실도서관이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대학로 '역사골목' 국민은행 건너편 3층 건물. 장서가 6만여권에 이른다. 이 가운데 3만권은 한국학 관련 서적, 반은 잡지이다.

이곳의 주인 김근수 박사, 1910년 한남 단천생이니까 올해 86세이다. 김박사는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나와 36년 경성외국어학원 교원으로 강단에 서기 시작, 그후 전북대 동국대 수도여사대, 장년퇴직 때까지 중앙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현역이다. 전공은 한국학과 잡지학, 출판근하고 강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이제야 출가본히 학자의 길을 걷는 것 같다.

동트기 전 일어나 도서관 앞길을 맑게 걷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 그

런 내가 문학박사니까 박사님, 이렇게 불려도 좋지.”

몇 년전 다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는 노구이지만 험한 눈빛과 또렷한 목소리는 나이 가늠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잡지 가운데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전권 소장본만도 70여종이다. 창간호만 치자면 무려 2천여종. 이것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 '잡지 박사'란 별칭도 좋다고 했다.

“과거의 잡지는 영리 목적보다는 동인지 성격이 강했어요. 이 때문에 근대화의 선구자 역할, 사회목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의 잡지는 대의를 생각지 않고 팔기 위한 잡지가 많아요.”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의 잡지와 인연이 굴곡 많았던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보성전문학교를 나와 경성외국어학원에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던 김박사는 조선어 과목이 폐지되자 우리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역연은 삼줄처럼 질기는데...

문 '나쁜 인연은 질기기가 삼줄같은 좋은 인연은 부드럽기가 고요히 떠오르는 불과 같다. 삼줄은 불을 뚫을 수 없으나 불은 삼줄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말에 대해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김도원·경북 문경시 농업면)

답 늘 말씀드리지만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습니다. 고로 부처님께서도 모든 악의 인연을 짓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자재한 경지에 이르러서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하면 참성품을 깨우쳐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무애자재한 마음의 경지를 터득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살아면서 범고액난이 거꾸 찾아 든다면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부하는 커녕 내게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칫 잘못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뿌린 씨는 결코 썩지 않아서 언젠고 내가 받지 않을

답 예전부터 염불을 통해 공부하는 길을 제시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불이란 입으로 읊조리는 걸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야 구구선에 불과하지요. 참다운 염불이란 바로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를 관할때 재대로 되는 것이지요. 입으로만 외니까 외다가 판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겠지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다 나를 형성시킨 근본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이고 나온자리에 다시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불하다가 번뇌망상에 사로잡힌다고 하는데 염불하는 몸이 누구인가 하듯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몸은 누구인가를 관할때 그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하는 몸도 실은 그놈이니까 거기다 되놓아보라. 되놓고 내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고 물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참선을 많이하는데 그것이 욕심이나 할까 아니라 참선하려는 생각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마저도 그 자리에 놓아 버릴 일입니다. 참선을 하고있다 했다가 이게 또다른 욕심이 아닌가 한다면 그 자체가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심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공정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행스님에게 물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86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미숙한 사람들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나쁜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나쁜은 다가오는 일체의 경계가 다 나를 공부시키는 재료이고 계기이긴 합니다만 질문하신 분도 좋은 여건에서 더 공부가 잘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마음공부를 하는데는 한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생각 바르게 내면 그 공덕은 무한합니다. 경전에 보면 '사구계' 하나라도 잘 수지하고 독속하면 그 공덕이 칠보로 수만산을 장식하는 것보다 크대하였습니까. 일념만이란 말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바로 공부의 인연을 말합니다.

세간살이에서 선업을 쌓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만 공부함에 한 생각 바르게 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적하신 대목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집자)

참선 잘못하면 미친다 하는데

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성배례를 마음으로 호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데도 어느 순간에 이르러 번뇌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또 참선을 잘못하면 미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기는지요. 참선에 열중하려 하는데 그것도 욕심인가요. (박효순·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또 망상이지요.

늘 몰라 놓아라 하는 것은 사랑을 쉬고 오직 관하라는 말입니다.

참선하다가 미친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선을 통해 놓고 쉬지를 못하고 오히려 또하나의 상을 짓고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사는 집으로 비유한다면 빈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자꾸 형상에 매달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이 빠진 것처럼 되어서 마치 빈 멧돌을 돌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선사의 말씀이 내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요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빼앗으라 했답니다.

그렇듯이 내 생명의 근본 주장자를 잃고 남의 주장자를 찾다보면 그만 빈 집같이 되어버려서 온갖 짐승이 들락거리고 벌레들이 들어와 사는 그런 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공부를 하시려거든 나의 주장자를 굳게 믿고, 일체는 거기서 벌어지고 거기로 든다고 믿어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에서 사랑분별을 짓지 말고 닦는대로 놓고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주장자,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아상을 말하는 줄로 알아 그만 아만심만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장자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도 이름하여 그렇다는 것인데 이름이야 뭐가 되었든 나의 근본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근본성품을 굳게 믿고 일체를 놓고 맡기고 관하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동트기 전 도서관 앞길 청소로 하루 시작 “성심·근면·성실 지팡이 삼아 부끄럼없이” 잡지 창간호 2천여종 등 장서 6만여권 우리말·글 지키기 평생 헌신한 국문학자

는 이곳을 '학(鶴)의 집'이라고 부른다. 또다른 명칭은 한국학연구소, 성암 잡지도서관. 그는 이곳의 소장이며 관장이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강의실을 일터로 삼았던 데서 이제는 개인연구실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 여전히 예전처럼 책을 읽고, 꼼꼼히 생각하고, 논문을 쓴다. 찾아오는 사람들 맞아 도서관 안내하고 책이야기를 한다. 가끔은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마다않고 가서 강의를 한다.

“옹(翁)이란 호칭은 90 가까운 사람에게나 붙여야 맞는 것이지. 나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늙은이 취급해서는 안되지. 소장님이나 관장님으로 불러야지. 아니

는 걱정이 많았다. 이때부터 우리말로 된 잡지와 신문 문서 수집에 나섰다.

소장본중에 가장 애착을 갖는 것은 <개벽>이다. 일제하에서 신문지법에 의해 1920년 창간되어 26년 통권 12호로써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된 종합일간 잡지로 일제치하 우리 언론잡지계의 대표적 위치를 차지한 잡지였다. 소지만해도 잡지학란 '불은서적'이었다. 이후 출판법에 의거해 속간을 거듭하며 72호까지 내는 동안 발행금지 1회, 정간 1회, 벌금 1회, 발행정지 1회 등 숱한 탄압과 역경을 헤쳐왔다.

“<개벽>은 내가 거의 대부분을 입수, 소장하고 있어요. 이 잡지 60호에는 이상화의 저항시 '배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실려 있었지요. 해방 후 우

리 국어교과서에도 실렸는데, 원래 발표된 시와 내용이 달랐어요. <개벽>을 근거로 이를 바로 잡았지요. 지난 81년에는 <개벽>지 암수원본선집을 발간해 조금이나마 한을 풀었습니다.”

그는 한국학 관련 책자와 잡지 모으기에 매달렸다.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과 책 모으는 일이 그의 평생생이었다.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저항시'이란 자작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 몸은 누가 뭐라 해도 평범 그것/ 구석바위에 서 있는 바윗돌 그것/ 오직 다만 지성일관(至誠一貫)/ 성심 성의 근면 성실을 지팡이 삼아/ 최후의 그날까지 걸어가려/ 한 이름없는 나그네// 아무리 바윗돌일 망정/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보아/ 아무런 부끄럼없이 거리걸음이 걸어가려/ 한 이름없는 나그네.”

책더미 한켠에 놓여진 그의 책상위로 한낱의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의 눈빛에 소년같은 미소가 어렸다.

“다시 태어나도 책 모으는 일과 한국학 연구의 길을 걷고 싶다”는 말로 잡간의 침묵을 깬 그는 “책은 풀동음이 아니라,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안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또 한편의 자작시, ‘젊은 학도들에게’를 외었다.

“물들새라 물들새라 나라의 아들 딸들이/ 아무리 이 우리가 더럽고 구릴 지라도/ 너희는 캄캄한 밤에/ 빛이거니 햇불이거니// 바르거라 참되거라 나라의 아들 딸들이/ 아무리 이 우리가 거짓말고 비뚤지라도/ 너희는 오는 날에/ 주추거니 기둥이거니//...”

한국잡지학회 회장, 한국학연구소 소장, 성암잡지도서관 관장, 명함만 그럴 듯한 게 아니다. 학술지 <한국학연구>를 41집까지 냈다. 12월초에 다음 호를 펴낸다. <한국잡지연표> <한국잡지사 연구>는 최근에 펴낸 것들이다. 요즘은 <잡지사연>에 관련 책을 쓰느라 기자들이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진다. ‘혼민정음’ 서문의 틀린 해석을 바로잡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현역이다.

정성운 기자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과 •최종 학교 졸업증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포교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 1989. 7. 3 학교설립공고
-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 93. 3 불교미술과·불교포교대(신문방송)과 개설
-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5. 8 중국본경중의대대학 문과제결
-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6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광주 삼복서점: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732-9904, 부산 영광도서관: 816-9500
대구제일서점: 424-0801, 대전문경서적: 252-8558
마산학문당: 46-2925, 인천 대한서림: 762-7337
김해 오복당: 36-2105, 전주 흥지서림: 88-5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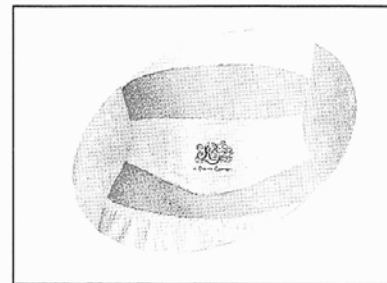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한 체형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껌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땀샘이 건조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썬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감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